

제12회
부산무용콩쿠르

1994. 11. 10 오후7시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부산직할시
KBS부산방송총국
후원: 한국예총부산지회



제12회 부산무용콩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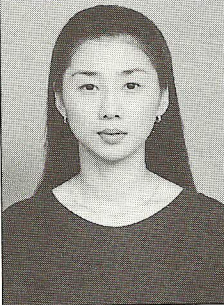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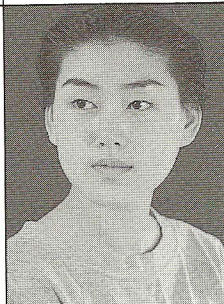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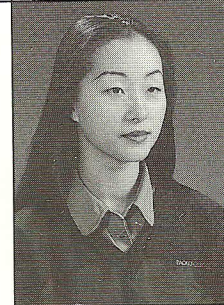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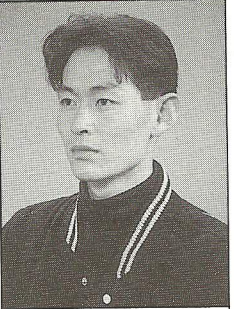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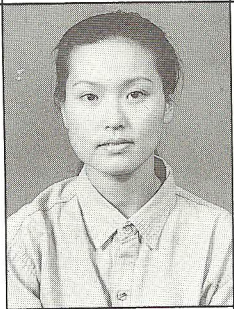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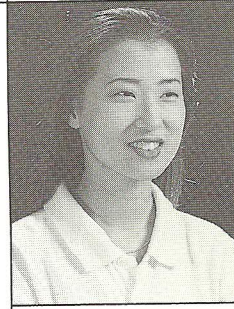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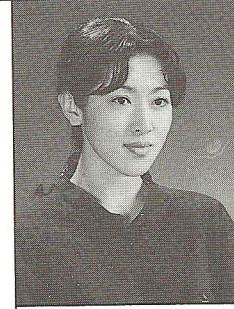
위원장	윤한중	(KBS부산방송총국장)
부위원장	신종관	(부산직할시 내무국장)
위원	김은경	(부산여대 무용학과장)
	김복선	(동아대 무용학과장)
	김은이	(동아대 무용학과 교수)
	김정순	(부산여대 무용학과 교수)
	남정호	(경성대 무용학과 교수)
	이운자	(부산대 무용학과 교수)
	이영희	(경선대 무용학과장)
	정귀인	(부산대 무용학과장)
간사	성대경	(KBS 부산 편성부장)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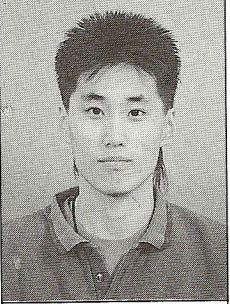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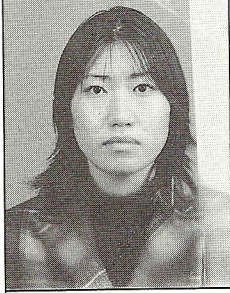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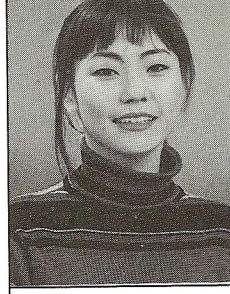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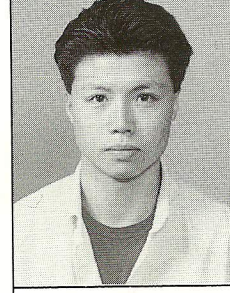
위원장(한국무용)	김은경	(부산여대 무용학과장)
위원(한국무용)	김미숙	(부산여전 무용학과 교수)
	김은이	(동아대 무용학과 교수)
	이운자	(부산대 무용학과 교수)
	이영희	(경성대 무용학과장)
	양학련	(부산여대 무용학과 교수)
(외국무용)	김복선	(동아대 무용학과장)
	김정순	(부산여대 무용학과 교수)
	김순금	(경상전문대 무용학과 교수)
	남정호	(경성대 무용학과 교수)
	정귀인	(부산대 무용학과장)
	하정애	(부산여대 무용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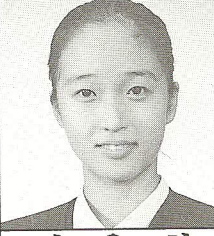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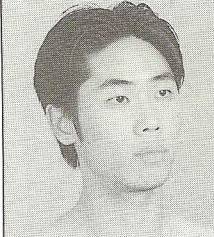

■ 참가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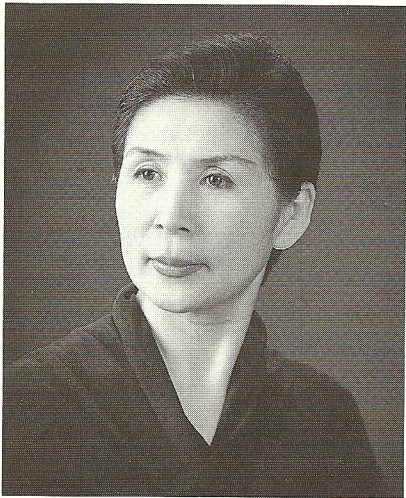
1	 <p>임현정 (24세)</p>	<p>● 부문 : 한국무용전통 ● 작품명 : 살풀이(5분 30초)</p> <p>● 작품해설 : 살풀이의 춤사위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어르는 동작을 위시하여 수건놀이와 발짓춤으로 정지하는 속에 가너린 울동, 이와 반대로 격렬한 움직임속에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p>
2	 <p>윤주현 (21세)</p>	<p>● 부문 : 한국무용전통 ● 작품명 : 살풀이(6분)</p> <p>● 작품해설 : 오늘날의 살풀이 춤은 민속춤의 하나를 독특한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정·동·중의 미를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표를 함으로써 춤추는 사람에 따라 흥과 멋을 다양한 움직임으로 자유 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p>
3	 <p>박길미 (22세)</p>	<p>● 부문 : 한국무용전통 ● 작품명 : 살풀이(6분)</p> <p>● 작품해설 : 살풀이란 살을 푼다는 의미인데 '한'과 '흥'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적으로 나타낸다.</p>
4	 <p>박재현 (22세)</p>	<p>● 부문 : 한국무용전통 ● 작품명 : 살풀이(6분)</p> <p>● 작품해설 : 살풀이라는 말은 무속의식에서 액(厄)을 제거하여 준다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로써 한국무용의 미적 요소인 한·흥·멋·태와 정·중·동의 춤사위를 고루 갖춘 여성 무용의 대표적인 춤으로 꼽을 수 있다.</p>

<p>5</p>	 <p>이 인 태 (24 세)</p>	<p>● 부문 : 한국무용전통 ● 작품명 : 승무(6분)</p> <p>● 작품해설 : 이매방 선생님의 호남 승무</p>
<p>6</p>	 <p>황 정 례 (19 세)</p>	<p>● 부문 : 한국무용창작 ● 작품명 : 나의 영혼을 찾아서(5분)</p> <p>● 작품해설 : 화안한 미소로 달려와서는 내 온몸을 감사안고 나의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그대는 다 아시는구려. 내 그대품에 비둘기처럼 안기기 위해 무엇을 할까.</p>
<p>7</p>	 <p>이 지 영 (22 세)</p>	<p>● 부문 : 한국무용창작 ● 작품명 : 젓빛영혼의 노래(4분10초)</p> <p>● 작품해설 : 환경오염과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해 집을 잃고 먹이를 찾아 헤매도는 작은 생 명들. 작은 숨 몰아쉬며 지내왔던 세월이 팔에 걸리고 발에 채이 듯 날개와 육체는 어이없이 흩어지고…….</p>
<p>8</p>	 <p>이 주 영 (22 세)</p>	<p>● 부문 : 한국무용창작 ● 작품명 : '하나임'으로(4분30초)</p> <p>● 작품해설 : 지금 우리는 하나여야 하는 상황 즉 민족분단의 현실, 사회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의 불화합 상황을 굿풀이 형식(정반합구조)으로 표현 하고자 함.</p>

참가작품소개

9	 <p>장 오 (22세)</p>	<p>● 부문 : 현대무용 ● 작품명 : 그리움이 그리워질 때(5분)</p> <p>● 작품해설 :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 많이 슬퍼질꺼야.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다 문득 잠시 잊고있던 기억들을 되살리다 보면 지쳐 눈을 감아버리겠지. 잊혀진 추억속으로 여러분 지금 무엇이 그리우십니까?</p>
10	 <p>이 정 순 (21세)</p>	<p>● 부문 : 현대무용 ● 작품명 : 하와의 애가(4분 5초)</p> <p>● 작품해설 : 고뇌하는 여인을 뒤돌아보면 퇴적된 밤 그림자들이 살아난다. 비록 강요된 시련이지만 그 누구도 아픔을 그려주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애가를 들으라. 대지를 흘러가는 하와의 눈물을.....</p>
11	 <p>송 성 아 (23세)</p>	<p>● 부문 : 현대무용 ● 작품명 : 미궁(4분 10초)</p> <p>● 작품해설 : 한 사람이 미궁을 헤매고 있다.....</p>
12	 <p>김 남 진 (26세)</p>	<p>● 부문 : 현대무용 ● 작품명 : 곧(SOON)(4분 20초)</p> <p>● 작품해설 : 그리곤 다시 기다렸다. 어릴적 할머니의 이야기를, 맨발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흙의 체취도..... 부패된 세상이 언젠가는 깨끗한 밝은 빛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며..... 다시 돌아오는 누군가의 체취를 느껴본다. 지금, 곧.</p>

<p>13</p>	 <p>강현여 (21세)</p>	<p>● 부문 : 발레 ● 작품명 : 해적중에서 여자솔로(1분 45초)</p> <p>● 작품해설 : 19C 환상적인 발레의 하나인 용감한 해적 conrader와 그리스 노예소녀 Megera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중 Megera의 Adagio Solo 부분이다.</p>
<p>14</p>	 <p>안준영 (22세)</p>	<p>● 부문 : 발레 ● 작품명 : 백조의 호수중에서 여자솔로(1분 50초)</p> <p>● 작품해설 : 마법에 걸린 「오데프」는 왕자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그러나 만약 왕자와 사랑의 약속이 깨어지면 「오데프」는 영원히 백조의 탈을 벗지 못함을 일깨워주는 우아하고도 애절함을 표현하고자 한다.</p>
<p>15</p>	 <p>정옥희 (17세)</p>	<p>● 부문 : 발레 ● 작품명 : 흑조(1분 20초)</p> <p>● 작품해설 : 백조의 호수中 흑조 Solo로 Jeté와 Fouetté로 무용수의 기량이 돋보이도록 구성한 작품이다.</p>
<p>16</p>	 <p>문경만 (21세)</p>	<p>● 부문 : 발레 ● 작품명 : 코펠리아중에서 남자솔로(1분)</p> <p>● 작품해설 : 19C 극적 Ballet의 하나중 Coppélia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프란츠 솔로 춘다.</p>
<p>17</p>	 <p>이수지 (17세)</p>	<p>● 부문 : 발레 ● 작품명 : 해적중에서(1분 15초)</p> <p>● 작품해설 : 해적中 여성 Solo로 Jgrand Jeté와 grand Fouetté로 무용수의 기량이 돋보이도록 구성한 作品이다.</p>



경성대학교 무용학과장
이 영 희

경성대학교 한국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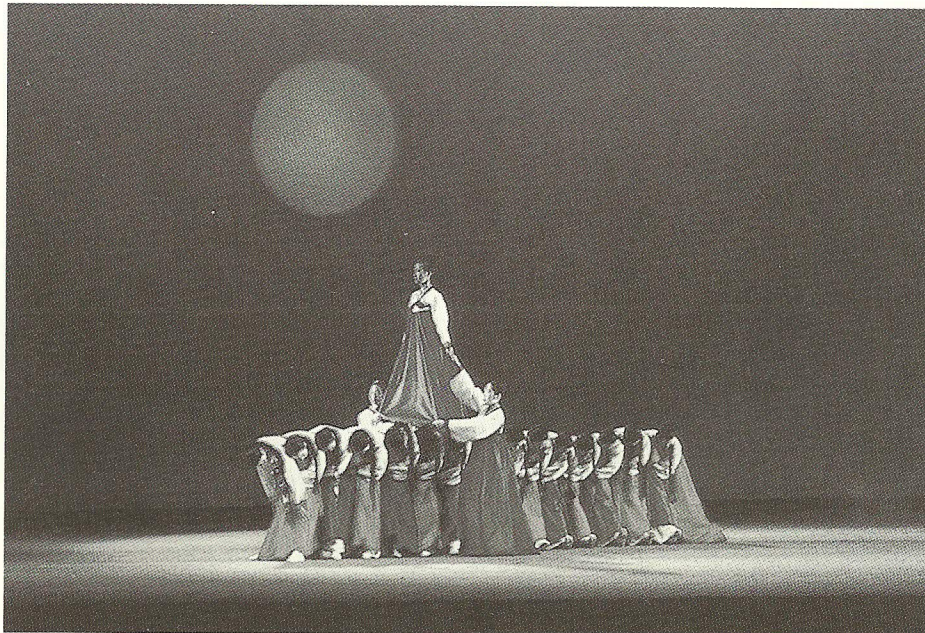
강 강 술 래

안 무 : 이 영 희

작품내용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 전승되어오는 민속놀이이다. 전승되어 오는 놀이중에서 가장 정서적이고 울동적인 놀이이며, 여성들에게 알맞는 놀이이다.

이 놀이가 생긴 유래에 몇 가지 설이 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창안했다는 설, 옛날 마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설, 가장 오래된 민속의 하나라는 설, 달을 맞이하고 추수감사하는 의식에서 나왔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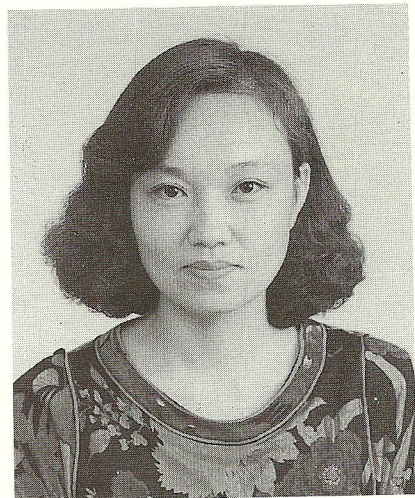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발레팀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안무: 주 수 광

작품내용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을 경쾌한 발레 테크닉으로 구사한 작품.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주 수 광

